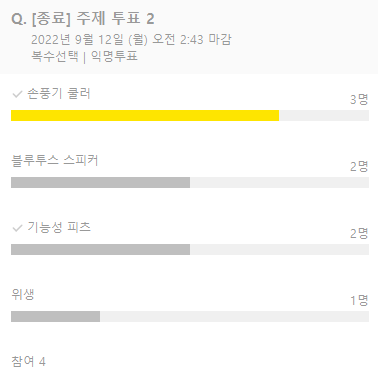
* **회의 개요**
* **시간:** 9월 11일 23시 30분 ~ 익일 00시 45분 / 9월 12일 01시 20분 ~ 04시 00분 (총 3시간 55분)
* **방법:** 디스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, 왕인성 집으로 집결하여 보드판과 포스트잇을 이용한 대면 회의
* **내용:** 각자의 KJ 매핑 결과물을 취합한 후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여섯모자 기법으로 판단
* **KJ 매핑 내용 정리**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* 김다현, 왕인성 |
|  |
| * 류송지 | * 박진석 |

* **의견 충돌 1**
* **충돌 내용:** 개인 KJ 매핑의 최종 결과물만 깃허브에 저장할 것인지, 과정본도 함께 저장할 것인 것
* **해결:** 과정본은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따로 남겨놓고, 결과물은 보기 좋게 하나만 따로 저장하여 보기 좋게 모아놓음.
* **의견 충돌 2**
* **충돌 내용:** 아이디어 중 “라이터 수납 케이스”와 “플라즈마 라이터 케이스”이 같은 아이디어라고 혼선이 있었음.
* **문제 파악:** 전자는 “원래 존재하던 라이터” 자체를 수납하는 아이디어고, 후자는 휴대폰 자체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, 이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임.
* **해결:** 두 개의 아이디어를 통합하지 않고 유지하되,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작성함.
* **KJ 매핑 결과물의 변경사항**
* 결과물 통합은 김다현, 왕인성의 개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, 통합 과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.
* **아이디어 수정**
* “플라즈마 라이터 케이스”의 부가 설명을 추가
* **분류 수정**
* “새로운 기능”을 “유용한 도구 추가”로 변경
* “나만의 케이스” 대분류를 제거
* 손풍기 쿨러 케이스를 “수납” 분류로 옮김
* **추가 아이디어**
* 스프링 달린 케이스(누락 건)
* 물티슈 수납 케이스
* 가방 부착 케이스
* 머리끈 및 머리핀 수납 케이스
* 시니타이저 등의 위생용품 케이스
* 카메라 렌즈 수납 케이스, 향수 수납 케이스
* 핸드크림 케이스, 향기나는 케이스
* 블루투스 스피커 내장 케이스
* 보조배터리 내장 케이스
* 가변렌즈 내장 케이스
* 에프킬라 내장 케이스
* 호신용품(후춧가루, 전기충격기) 내장 케이스
* 헬리캠 추가 케이스
* 차키(NFC) 내장 케이스
* **의견 충돌 3**
* **충돌 내용:** 여섯모자 기법의 모자 담당에 대한 충돌
*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 -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모자를 사용해서 진행하자.
*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서 보는 것이 중요 – 자신의 성향에 맞는 모자를 사용해서 진행하자.
* **해결:** 주제를 두 개를 선택하여 두 개의 버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자
* **의견 충돌 4**
* **충돌 내용:** 여섯 모자 기법에 사용할 주제(아이디어) 선정에 대한 범위 문제
* 하나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KJ 매핑으로 매핑된 결과물(김다현, 왕인성 KJ 매핑 내용 정리 사진의 짙은 노란색 포스트잇 부분)도 채택하자 – 광범위 하면 더 많은 의견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.
* 매핑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로 범위를 축소하자 - 매핑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, 현 시간(새벽 2시 언저리) 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 명확한 아이디어 주제가 필요함
* **해결:** 광범위한 주제라도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해볼 수 있으므로 채택. 단,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시간 제한을 맞추고 회의 진행
* **여섯 모자 기법 주제 선별**
* 수십 개의 아이디어 중 각자 한 개를 선택하여 카카오톡 투표를 진행해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상위 2개의 아이디어를 채택함.
* 투표 결과, 우측의 사진처럼 “손풍기 쿨러”와 “기능성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” 아이디어가 선정됨.
* **여섯 모자 기법 (손풍기 쿨러)**
* **토론 주의사항**
* 회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: 5분
* 하나의 아이디어 당 25분 내외로 진행
* **모자 선정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성함 | 역할 | 상세 |
| 김다현 | 검정 모자 | 부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|
| 박진석 | 노란 모자 | 긍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|
| 왕인성 | 파란 모자 |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견 요약, 단계 진행 |
| 류송지 | 빨강 모자 |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 제시 |
| 초록 모자 |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|
| 김지환 | 하양 모자 | 중립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및 정보 전달 |

* **토론 기록** (각각의 모자 역할은 위의 표처럼 색깔로 구분함)

|  |  |
| --- | --- |
| **류송지:** | 케이스의 손풍기 쿨러를 탈부착식으로 제작하면 좋겠다 |
| **박진석:** | 쿨러로 인해 케이스가 무거워질 수 있지만 탈부착으로 제작하면 무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|
| **김다현:** | 탈착시에는 손풍기의 분실 위험이 있다 |
| **박진석:** | 파우치를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다 |
| **김지환:** | “탈부착” 형식이라면 정확히 어떤 방식을 생각중인가? |
| **류송지:** | 케이스에 트레이를 만들어놓고 쿨러만 자석이나 잠금장치 등으로 붙히고 뗄수 있는 방식 |
| **박진석:** |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하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좋게 생각한다 |
| **류송지:** | 지갑 케이스의 느낌으로 제작하면 좋겠다 |
| **박진석:** | 감성적인 면모가 드러난다. 멋있다 |
| **김다현:** | 감성적인 면을 중요시한다면 고객들은 아이폰을 사용할 것이다 |
| **박진석:** | 테크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“기계덕후”들은 이것이 감성적인 면을 자극한다 |
| **김지환:** | 과연 탈부착이 필요한가? 바람 나오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 |
| **류송지:** | 방향 조절하는 팬이 있다면 두꺼워 지는데 그걸 그립톡처럼 활용할 수 있을거 같다 |
| **김다현:** | 다른 얘기지만 손풍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|
| **류송지:** |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|
| **김다현:** | 스티커는 무의미하다 |
| **류송지:** | 다른 전자기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잘 살아 있다. 그 논리대로라면 컴퓨터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|
| **박진석:** |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해 무해한 정도로 발생된다 |
| **김다현:** |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.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다 |
| **류송지:** | 기기로부터 30cm 떨어지면 안전하다 |
| **김지환:** |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. 정확한 학계의 정설이 발표될 때 까지는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|
| **왕인성:** | 여기서 잠시 토론을 일시 중단하고, 결론이 도출된 것이 있나? |
|  | * **중간 결론 도출** * 탈부착이 가능한 양면 무풍 손풍기가 있는 케이스 아이디어 * 여기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논쟁 제외 대상 |
| **박진석:** | 무풍 손풍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가? |
| **류송지:** | 자세한 논리적 아이디어는 모른다. 미래의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다 |
| **박진석:** | 중간 정리하자면 나는 손풍기 쿨러 탈부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|
| **김다현:** | “손풍기” 라고 발언했는데, 겨울이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? |
| **박진석:** |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“탈부착”이란 기능이 있다 |
| **김다현:** | 이해했다 |
| **류송지:** | 여름엔 쿨러로, 겨울엔 핸드폰 열기의 도움을 받아 난로로 사용 가능하다 |
| **왕인성:** | 의문점 한가지가 있다. 열기를 쿨러로 해소한다면 여름에도 따뜻한 열기가 나오지 않나? |
| **류송지:** |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“양면 쿨러”를 채택했다 |
| **왕인성:** | 이해했다. 하지만 류송지님은 빨간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는 자제해달라. 옐로카드 한 장을 부여하겠다 |
| **김다현:** | 의문점이 있다. 쿨러의 청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|
| **류송지:** | 선풍기를 분리하여 청소하는 것 처럼 쿨러의 팬을 분리하여 청소하면 된다 |
| **김다현:** | 조그마한 팬을 매번 청소하는 것은 귀찮을 것이다 |
| **박진석:** | 팬 자체를 버리고 새로 끼우는 “소모품”의 형태로 개발하면 된다 |
| **김다현:** | 소모품도 계속 구매하기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|
| **류송지:** | 당신은 PC의 쿨러는 사용하지 않는가? |
| **김다현:** | 사용하긴 한다만 그것은 고가의 기기에 달려있는 쿨러이지 않는가 |
| **류송지:** | PC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쿨러 받침대를 사용한다 |
| **김지환:** | 실제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CPU 쿨러 제품이 존재한다 |
| **김다현:** | 실제 CPU 쿨러의 제품은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아이디어가 있나? |
| **류송지:** |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면 된다 |
| **김다현:** |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? |
| **류송지:** |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면 된다. 가성비를 원하는 사용자는 저렴한 재료로 만든 쿨러를,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는 만듦새가 높은 쿨러를 선택하면 된다 |
| **왕인성:** | 류송지님, 빨간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는 자제해달라. 그리고 현재 시간 상 최종 결론을 맺어야 한다 |
| **김지환:** | 결론적으로, “손풍기 쿨러 케이스” 제품이 존재한다면 사용할 것인가 투표를 진행하자. |
|  | * **결론: 해당 아이디어 제품이 제작된다면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?** * **사용하지 않을 것이다: 김다현, 왕인성, 김지환** * **사용할것이다: 류송지, 박진석** |

* **여섯 모자 기법 (기능성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)**
* **모자 선정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성함 | 역할 | 상세 |
| 김다현 | 초록 모자 |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|
| 박진석 | 검정 모자 | 부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|
| 왕인성 | 하양 모자 | 중립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및 정보 전달 |
| 류송지 | 노란 모자 | 긍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|
| 파란 모자 |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견 요약, 단계 진행 |
| 김지환 | 빨간 모자 |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 제시 |

* **토론 기록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류송지:** |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시작해보자 |
| **김다현:** | 레고 같이 케이스에 각각 수납함을 만들어 결합하는 아이디어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|
| **류송지:** | 공감한다. 특히 레고처럼 디자인에 특화된 수납함에 크게 동의한다. |
| **박진석:** | 이의 있소. 레고처럼 작은 하나하나의 부품으로 수납함을 만든다는 의미인가? |
| **김다현:** | 맞다. 그게 해당 케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본다 |
| **박진석:** | “작은 부품”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 수 있나? |
| **류송지:** |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 부품으로 DIY 애호가에게 큰 인기가 있다 |
| **김다현:** | 스마트폰 기종마다 부품의 크기는 달라진다. |
| **왕인성:** | 여기서 부품은 아두이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|
| **박진석:** | 이해했다. 그리고 이 방식이 마음에 든다 |
| **류송지:** | 박진석님은 검정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견은 자제해달라. 레드카드 꺼낼 뻔 했다 |
| **김지환:** | DIY로 하면 부품의 탈락이 쉽게 되지 않나 |
| **박진석:** | 동의한다. 탈락이 쉽게 되지 않나 |
| **류송지:** | 초강력 접착제를 이용하면 해결 된다 |
| **왕인성:** | 레고의 얇은 판 부품 두개를 겹쳐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? |
| **박진석:** | 분리가 쉽게 되지 않더라. 이해했다 |
| **김지환:** | 레고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부품을 떨어뜨리면 쉽게 파손되지 않는가? |
| **김다현:** | 두 개의 이어진 부품을 접착제로 붙이면 해결된다 |
| **박진석:** | 접착제를 사용하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|
| **김다현:** | 향수로 악취를 감추면 해결되는 문제다 |
| **김지환:** | 접착제로 부품을 붙이는 것은 레고를 “조립”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|
| **류송지:** | 접착제로 레고를 붙이는 것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|
| **왕인성:** | 하지만 접착제로 붙힌 케이스도 떨어뜨리면 파손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|
| **류송지:** | 왕인성님, 하양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의견과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제시를 자제해달라. 옐로 카드 한장을 지급하겠다 |
| **왕인성:** | 알겠다.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 “젤리 케이스” 같은 경우는 파손 위험이 없지만, 하드케이스 같은 경우 파손 위험이 존재한다 |
| **류송지:** | 의견에 동의한다. 하지만 젤리 케이스도 기기 파손은 막을 수 없지 않나 |
| **왕인성:** | 동의한다. 하지만 레고 부착형 수납함은 젤리 케이스 보다는 하드케이스에 더 적합할 것 같다 |
| **류송지:** | 동의하지만, 적절한 근거와 관련 의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|
| **김지환:** | 부품을 보다 쉽게 탈부착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|
| **류송지:** | 해당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거 같다 |
| **박진석:** | 해당 의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.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수납되고 있는 물품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|
| **김다현:** | 자석이 아닌 벨크로를 사용하면 해결 되는 문제다 |
| **왕인성:** | 오토바이로 배달 할 때 사용되는 매우 강력한 벨크로가 존재한다 |
| **류송지:** | 동의한다. 실제 콜라 배달을 할 때 벨크로를 사용했는데 너무 고정이 잘 된 나머지 오토바이의 진동으로 콜라가 터진 경험을 토대로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 |
| **왕인성:** | 공감한다. 리뷰 이벤트로 사장님의 사인의 받은 사인도 갖고 있다 |
|  | **[ 잡담 ]** |
| **류송지:** | 대화의 주제가 너무 빗나갔다 의견을 말해달라 |
| **왕인성:** | 레고와 벨크로와 자석을 제외하고 박진석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|
| **김지환:** | 그 전에, 본론으로 돌아와서 DIY란 새로운 완제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는 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, 레고를 접착제로 붙인다면 다른 부품으로 교체 할 수 없게 되므로 DIY 케이스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.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는 논점에 어긋난다 |
| **류송지:** | 반박한다. “DIY”의 정의는 “자신이 직접 파츠를 만들고 꾸민다”라는 의미다 |
| **김지환:** | 아이디어의 주제는 파츠 “탈부착” DIY 케이스다 |
| **류송지:** | 그럴 경우는 그 파츠 부분만 제거한 뒤 해당 파츠를 다시 접착제로 붙이면 해결된다 |
| **박진석:** | 이의 있소. 파츠를 두개 이상 붙이면 파손 가능성과 내구성 문제가 있고 한번 파손되면 해당 파츠는 다시 사용하기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|
| **류송지:** | 해당 문제는 탈부착으로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다 |
| **김지환:** | 이의 있소. 파츠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해당 종류의 파츠가 언제 어디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것이 탈부착의 흠이라고 생각한다 |
| **류송지:** | 탈부착 및 DIY의 의미 자체가 사용자의 마음대로 요소를 추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것. 따라서,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한 요소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, 생산자는 “세트 상품”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처럼 둘의 상호작용이 일어남과 동시에 위의 흠을 해소할 수 있다 |
| **김지환:** | 사용 도중 다른 물건의 수납이 필요하다면 해당 물건 수납 파츠를 불여하 하는데, 그 과정이 번거롭다 |
| **류송지:** |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개의 파츠를 미리 부착하면 해결된다 |
| **왕인성:** |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파츠를 미리 구매한 뒤, 필요와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편의성과 디자인적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 DIY의 가장 큰 메리트임 |
| **류송지:** | 파츠 뿐만 아니라 사진 등도 부착이 가능하며, 모든 파츠가 필요한 헤비유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|
| **왕인성:** | 위의 근거를 토대로 상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, 더 나아가 중고거래 시장의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음 |
| **김다현:** | 새로운 아이디어로 파츠들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|
| **류송지:** | 좋은 생각이다. 케이스에 모든 물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취향에 맞는 물건 보관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 |
| **김지환:** | 모든 물건을 담을 거면 가방에 넣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? |
| **류송지:** | 가방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낮다 |
| **왕인성:** | 가방안에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것 처럼, 파츠를 담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|
| **김지환:** | 수납 파츠의 목적이 상시 들고있는 스마트폰에 간단한 물건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편리함인데, 모든 파츠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는 해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|
| **박진석:** | 위의 의견에 동의한다 |
| **류송지:** | 좋은 의견이다 |
| **왕인성:** |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말하겠다 |
|  | **[ 입장 차이와 발언권에 대한 이야기 ]** |
| **왕인성:** | 큰 수납이 필요한 경우는 가방에, 작은 물건 보관이 필요할 때는 수납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|
| **류송지:** | 상시로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에 비해 가방은 일시적으로 큰 이동이 필요할 때만 주로 사용하는 특징을 관찰하면, 가벼운 이동을 할 때 작은 물건의 수납이 매우 유용하다 |
| **김지환:** | 그럴 경우, 가벼운 이동의 목적에 맞게 한 가지의 파츠만 사용하면 되며, 여러 개의 파츠를 살 이유는 없다 |
| **류송지:** | 개개인마다 주로 사용하는데 있지만 그것이 꼭 “한 가지”가 아닌 두 개 이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여러 개의 파츠가 필요하다 |
| **김지환:** | 만약 이동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 두 개 이상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나? |
| **류송지:** | 두 개 이상이라면 들고 다니겠다 |
| **김지환:** | 그렇다면 DIY 케이스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|
| **왕인성:** | “수납공간” 하나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, 여러 크기의 수납공간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면 여러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|
| **류송지:** | 동의 한다 |
| **왕인성:** | 주제를 바꿔서, 현재까지 너무 많은 긍정적인 의견만 나왔다.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봐야 공평하지 않나 |
| **박진석:** | 부정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 |
| **류송지:** | 부정적인 의견은 있다. 예를 들어 무선충전 기능이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 |
| **박진석:** | 위의 의견에 격하게 동의한다 |
| **왕인성:** |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되는 파츠를 달면 해결되지 않겠나 |
| **김다현:** | 아이폰을 예로들면 “맥세이프” 모듈이 좋은 예다 |
| **류송지:** | 그 모듈을 무겁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|
| **왕인성:** | DIY 케이스는 무게를 감안하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|
| **김다현:** | 맞다,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는 다양한 외형이 큰 장점이라 무거운 무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|
| **왕인성:** | 또한,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헬스 매니아가 중량을 칠 수 있도록 개조하면 더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|
| **김지환:** | 나쁘지 않은 의견이다. 인정한다 |
| **류송지:** | 긍정적인 검토가 많이 나와서 좋다. 다른 부정적 의견이 없으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겠다 |
|  | * **결론** * 생산자 입장에서,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몰라도 파츠의 종류만 많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김 * 소비자의 입장에서, 대중적이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-윈인 최고의 아이디어 * 종류가 너무 많아 재고가 발생한다면, 수요가 적은 선택지는 소량 생산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됨 |